

지역과 선순환 경제

(강원대, 정준호)

1. 지역차원에서의 선순환 경제?

- 성장이나 개발의 선순환을 이야기한다면 물적 조건의 개선과 인간 본성의 계발이 지역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을 것임.
- 도시계획가 Friedmann(2000)은 좋은 도시(good city) 또는 지역의 물적 요건으로 주택, 보건의료, 괜찮은 일자리, 약자에 대한 사회 서비스 제공을 제시, 이외에도 환경과 교육 등이 주요한 물적 기반으로 추가 가능
- 다른 한편으로, 그에게 좋은 도시 또는 지역이란 이러한 영역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와 의사결정을 이끌어내고 엮어내는 거버넌스의 구성을 통해 인간의 유용한 발전(human flourishing)과 다원성(multipli/city)의 기반을 다지는 것임.
- 지역의 경제성과는 통상적으로 소득, 고용, 그리고 삶의 질의 개선으로 요약되고, 이것이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는 여건과 그 기제를 갖추는 것이 지역차원의 선순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2. 지역경제성장(또는 발전)론

- 지역성장을 다루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존재하는데, 기본적으로 물적 조건의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참여를 통한 인간본성의 계발이란 측면은 다소 간과되는 측면이 있음.

〈표 1〉 지역경제의 성장론

이론	지역성장과 생산성의 주요 원천
수출기반이론	- 지역교역(가능한)기반의 경쟁력(생산성)은 지역경제성과의 중요한 결정요인, 수출기반론은 지역의 수출부문이 지역의 비교역(가능한)활동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승수효과를 통해 소득, 투자, 생산성을 제고하는 데에 이 부문이 수행하는 역할을 조명
내생적 성장론	- 숙련 인적자본의 축적과 유치가 기술진보에 미치는 효과를 통해 지역경제성장과 생산성 진보의 주요 원천, 그러한 인력의 국지화가 지식창출과 확산효과, 이에 따른 혁신을 촉진
네오 스펀터론	- 혁신, 기술진보, 기업가주의가 지역경제성과의 주요한 추동요인, 지역 혁신을 자극하는 두 가지 상이한 논의가 존재: 첫째, 지역경제의 전문화(유사 또는 동종기업 간 경쟁을 통한) 또는 지역), 둘째, 지역경제의 다양성(창의와 시장기회 범위의 확대를 통한).
클러스터론	- 지역의 경쟁우위는 수출지향적인 특화 산업과 관련 지원 공급자와 제도적 네트워크의 국지적 클러스터에 의해 결정, 이러한 클러스터는 기업 간 경쟁과 지식 확산효과, 혁신, 투자, 그리고 국지적인 전문 숙련노동 풀(pool)의 형성을 촉진하고 이는 지역의 생산성을 제고
진화론	- 진화론은 지역경제가 동학적인 경쟁우위, 시장변화,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 신기술의 개발에 대응하는 적응역량(adaptive capabilities)을 강조, 지역의 경쟁우위는 과거 발전 - 경로의존성 - 와 발전의 새로운 경로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의 복잡한 결과, 제도적 형태의 진화는 이러한 과정에 핵심적
제도론	- 지역의 경쟁우위는 제도의 두터운 착근성(thickness)에서 기인, 공식적·비공식적 제도 - 사업조합과 협회, 교육과 훈련기관, 기업가적인 문화, 시민적인 신뢰, 다른 유형의 사회자본 등을 망라하는 - 경제발전을 위한 매우 양호한 환경을 제공
문화론	- 지역성공을 창조성, 혁신과 기업가주의를 고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문화적 다양성과 관용(tolerance)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와 기업들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문화적 어메니티와 인프라에 기인

자료: Martin(2005) 일부 수정.

○ 경쟁력 개념에 회의적이던 Krugman(2003)은 스코틀랜드 경제를 다루면서 국가차원에서보다 지역차원에서의 경쟁력 개념이 적실할 수 있다고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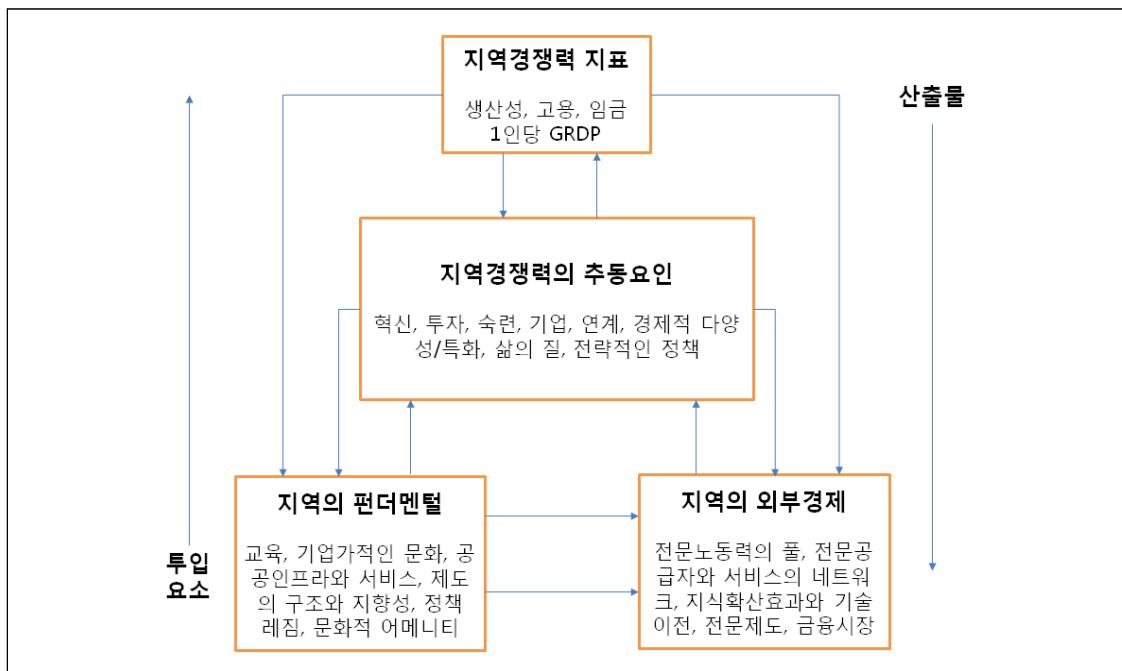
- 그는 비교우위만큼이나 절대우위를 강조하고 있어서 국민국가 수준의 논의와 차이가 남.

- 그는 지역 경쟁력의 원천이 지역의 외부경제와 지역의 펀드멘털이

라고 제시하였음.

- 지역의 펀드멘털은 지역 특수적이고 착근되어 비교역 자산 또는 부존자원, 따라서 지역 간 이동불가능, 따라서 지역의 절대우위 형성의 기반, 지역의 사회경제적 환경을 구성
- 반면에, 지역의 외부경제는 지역 특수적이고 지역의 특정 경제활동과 전문화의 패턴에서 파생되거나 연관되어 있음.
- 결과적으로 지역의 경쟁력은 단순한 기업들의 합이나 평균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기업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내생적이고, 지역 특수적인 특성들과 연관되어 있음.
- 그는 지역의 펀드멘털과 외부경제를 지역경제에 대한 투입요소로, 지역의 생산성을 산출물로 이해하고, 이들 간의 상호의존으로 나타나는 자기강화적 과정으로서 지역의 성장을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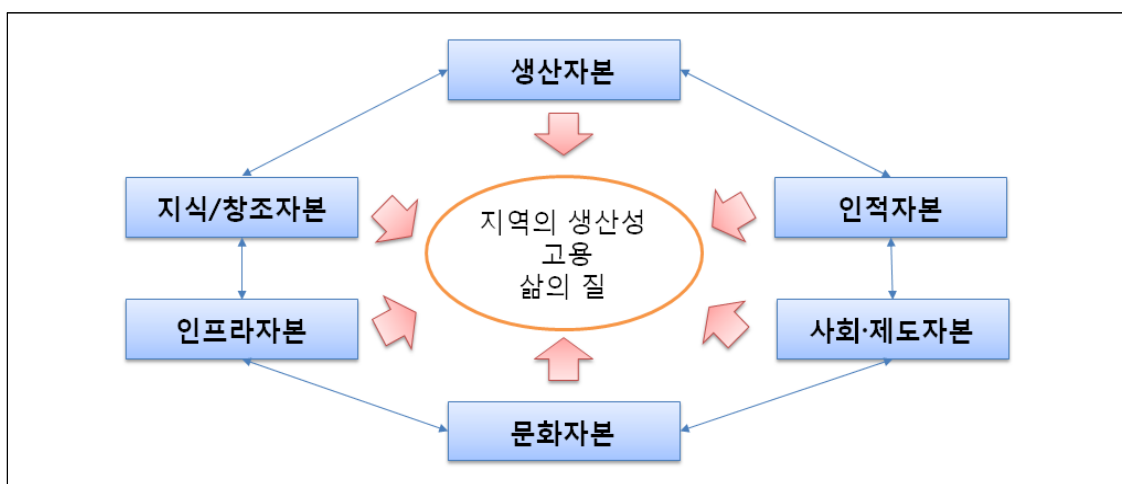
〈그림 1〉 자기강화적 과정으로서 지역경제의 성장



자료: Martin(2005) 일부 수정.

- 이러한 논의는 기존의 논의들을 잘 요약하고 있지만, 다소 정태적인 경쟁우위의 논의에 그침
- 최근에는 지역차원의 동학적인 경쟁우위가 강조되는데, 이는 지역의 성장을 역동적인 적응역량의 제고로서 이해함.
 - 지역의 역동적인 적응능력은 기본적으로 혁신에 관한 것이고, 혁신은 지역의 기존 기업이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게 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시장환경이나 기회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게 함.
 - 저명한 도시평론가인 제이콥스(Jacobs)가 이야기하는 ‘지속적인 수입대체의 과정’이 도시 또는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음.
- 지역이 단순한 기업들의 합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역은 다양한 자본이나 자산이 조합될 수 있는 역동적인 장을 제공할 수 있어서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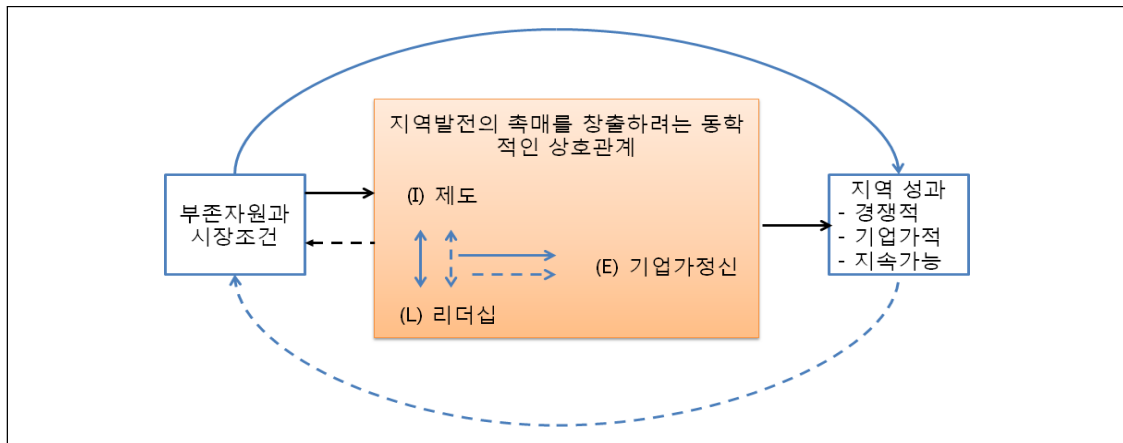
〈그림 2〉 지역 경쟁우위의 기반



자료: Michael Kitson et al.(2004).

- Stimson et al. (2009)는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제도, 리더십, 기업가정신이 지역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행위자의 적극적인 역할을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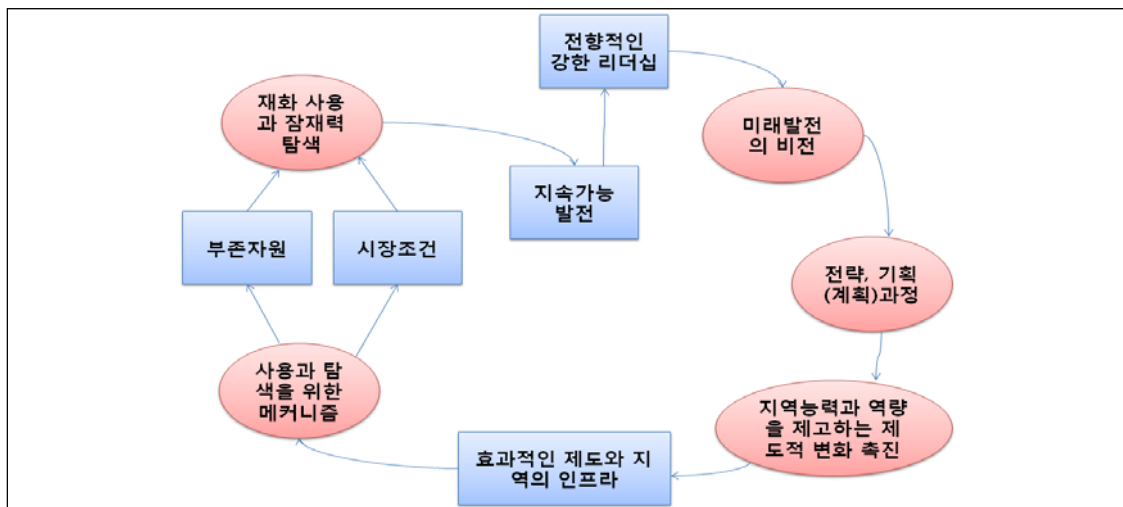
〈그림 3〉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 프레임워크



자료: Stimson et al. (2009).

- 지역발전의 선순환은 지역의 펀더멘털과 지역의 외부경제를 창출하려는 전향적인 리더십이 제도와 기업가정신 분위기와 결합되어 이것이 궁극적으로 소득, 고용, 삶의 질의 제고로 이어져 지역의 발전을 지속가능하게 되는 과정을 일컫음.

〈그림 4〉 지역발전의 선순환



자료: Stimson et al. (2009).

3. 지역과 지역정책: 선순환 경제를 향하여

□ 지역의 개념

- 지역(region)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Cooke(2005: 1134-35)에 따르면, 라틴어 ‘regio’가 그 어원이고, 이는 ‘to govern’이라는 의미를 가진 ‘regere’에서 유래
 - 지역개발론에서 지역은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의 거버넌스를 의미하고, 한 국가의 행정단위로서의 지역에 대한 정의가 일차적인 관심사
 - 반면에 지리학에서는 지역을 ‘지표면 또는 공간의 어떤 거대하고, 무한하고, 연속적인 일부’ 또는 지리, 기능, 사회 또는 문화적 구분에 따른 공간단위로서 이해, 따라서 지역은 추상적 공간과 기능지역을 의미
- 정책개입을 강조하는 지역발전론의 입장에서 지역은 국지적인(local) 영역수준보다는 상위의 영역수준(sub-national)의 영역
 - Cooke(2003)는 상호작용적 학습의 적정 단위, 규모의 경제, 정책요소 등을 고려하여 스페인처럼 자율성을 가진 지역 공동체로서 연방국가의 주(州) 또는 도(道)가 지역혁신체제 구축의 적정 공간수준이라고 제시
- 지역은 기업이나 국가 사이의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음.
 - 미시적인 개별기업의 단순한 스케일의 확대 버전이나 이러한 기업들의 단순한 총합도 아니고, 단순한 거시적인 국민경제의 단순한

스케일의 축소 버전도 아님.

- 지역은 기업과 달리 폐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와 달리 일정한 조건하에서 지역 간 교역이 제로섬에 이를 수도 있음.

□ 경제활동의 공간적 외부효과의 범위에 관한 경험 연구

- 지역은 그렇다면 경제활동을 조직할 수 있는 적정 공간단위가 될 수가 있으며, 지역성장을 위한 적정 공간규모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전자는 기업과 국가경쟁력과 달리 지역 경쟁력이 존재하는가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으며, 후자는 그러한 경제활동의 공간적 구성과 그 범위와 연관되어 있음.
-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신뢰와 협력이 구축되어 대면접촉이 가능할 수 있는 규모가 작지만, 규모와 범위의 경제(혹은 복잡성의 경제)가 향유될 수 있는 규모가 큰 공간” (Amin and Thrift, 1994)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
- 이를 충족시키는 방법은 일정한 광역권 내 지역중심지들 간의 기능적 보완성에 기초한 교역과 상호작용의 증대, 즉 네트워크의 형성을 통해 경제(산업) 규모와 다양성의 우위들을 확보하는 것임.
- Ohmae(1995)는 세계화 시대 개방경제하에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유지하기 위해 4C(Communication, Capital, Corporation, Consumer)가 순환하는 500~2000만 인구규모의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음.
- Anselin et al.(2000)는 미국 대학연구의 지식 확산효과에 따른 공간적 외부효과가 50mile, 약 80km 내외의 거리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점을 제시

- Rice et al. (2006)은 영국을 사례로 생산성과 공간적 근접성 간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추정하였는데, 그 근접성의 대리지표로 시간거리를 사용한 결과 80분을 넘어설 경우 공간적 근접성이 생산성에 기여한 정도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줌.
- 또한 정준호(2007)는 한국의 혁신활동의 공간적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공간적 외부효과가 주로 대략 90km 내외의 거리 구간 내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줌. 이는 인접한 2-3여개의 광역자치단체를 포괄하는 공간규모임.
- OECD(2006)는 인구 600만 명을 넘어설 경우 대도시에서 집적의 불경제가 나타난다고 제시하였음.

□ 지역정책의 규정과 유형

- 지역정책 논의는 중앙정부 차원과 지역차원의 논의를 구분해야 하는데, 중앙정부 차원은 지역 간 문제를, 지역은 지역 내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 초점이 다름.
-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문제는 지역 간 문제를 수반하기 때문에 균형(balance)의 문제를 회피 불가능
-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정책은 지역 간 개인 선호의 경제적 균형(equilibrium)을 단순히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 계층구조 간의 균형(balance)을 통해, 즉 중앙권력에 대한 지방의 정치적 견제와 성장의 공간적 다극화를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성과 경제권력 행사의 공간적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민주주의 가치의 증진을 지향하는 것을 목표로 함(정준호, 2012).

- 따라서 자원과 역량의 공간적 분포는 단순한 분포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이러한 의미에서 지역정책은 다른 부문정책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짐
- 지역정책은 지역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수요주도와 공급주도 정책으로 구분이 가능함.
- 수요주도 정책은 지역문제는 일정지역의 생산물에 대한 수요부족에서 파생한다고 사고하며, 고성장지역에서 저성장지역으로 투자와 일자리의 분산을 통해 총수요와 고용의 공간적 분포의 균형(balance)을 도모하려고 함.
- 따라서 발전주의적이고, 전략적인 사고가 미약함.
- 공급주도 정책은 지역문제는 수요부족이 아니라 비효율성, 경직성, 비유연성, 적응성(adaptability)의 부족에 기인한다고 사고하고, 아래로부터 지역의 자산을 활용하여 내생적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일차적 과제로 등장함.
- 이러한 사고에는 견제와 균형이란 관점에서 민주주의 확대라는 사고가 생략되어 있는데, 소위 발전주의적 사고가 갖는 한계가 반영되어 있음.
- 최근의 지역정책은 내생적인 역량구축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를 대부분 표방하고 있으며, 이는 성장과 네트워크의 강화에 집중하고 있음.
- 따라서 본래적인 의미의 지역 간 균형이라는 지역정책의 정체성은 퇴색되고 지역정책은 지역성장 또는 발전정책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음.

〈표 2〉 지역 성장정책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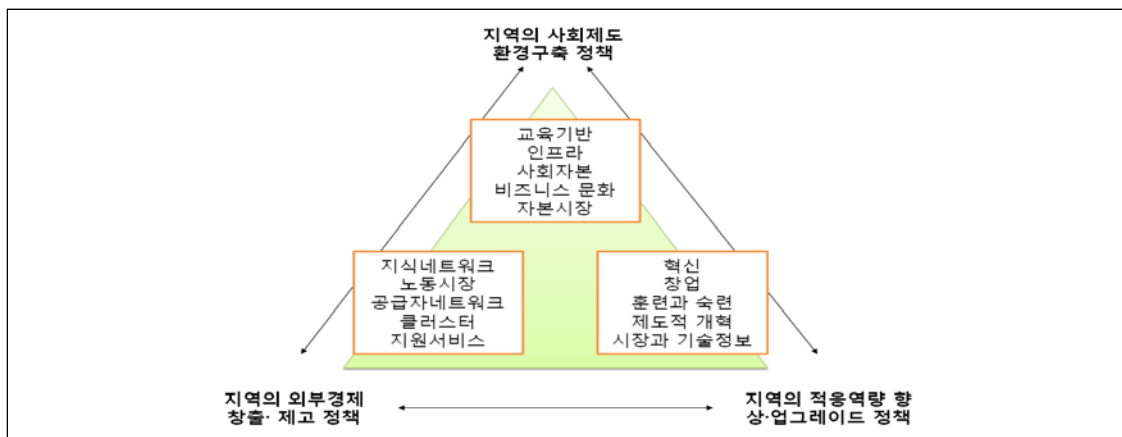
제로섬	성장 강화	네트워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수 지역 관측 - 역외 자본의 유치 - 투자보조금 - 부지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 훈련 - 기업가주의 촉진 - 창업촉진 - 사업서비스와 컨설팅 제공 - 조정 - 인프라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 네트워킹 - 외부 네트워크 형성 - 벤치마킹 평가 - 연결성과 접근성(도로, 철도, 항공, 통신망 등) - 신지식을 위한 글로벌 탐색

자료: Malecki(2004).

○ 〈그림 5〉는 최근 역동적인 지역경쟁력의 제고를 위한 세 가지 유형의 정책방향을 요약 정리하여 보여주고 있음.

- 최근의 한국의 지역정책은 지역의 외부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클러스터와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려고 시도하였지만, 이러한 네트워크가 작동할 수 있는 사회제도적 환경과 지역의 적응능력 향상에 대한 관심은 소홀히 다루었음.
-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이 강력한 상황에서 기업 간 연계의 다각화를 어떻게 추구할 수 있으며, 어떻게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가 없음.

〈그림 5〉 역동적인 경쟁우위의 창출을 위한 지역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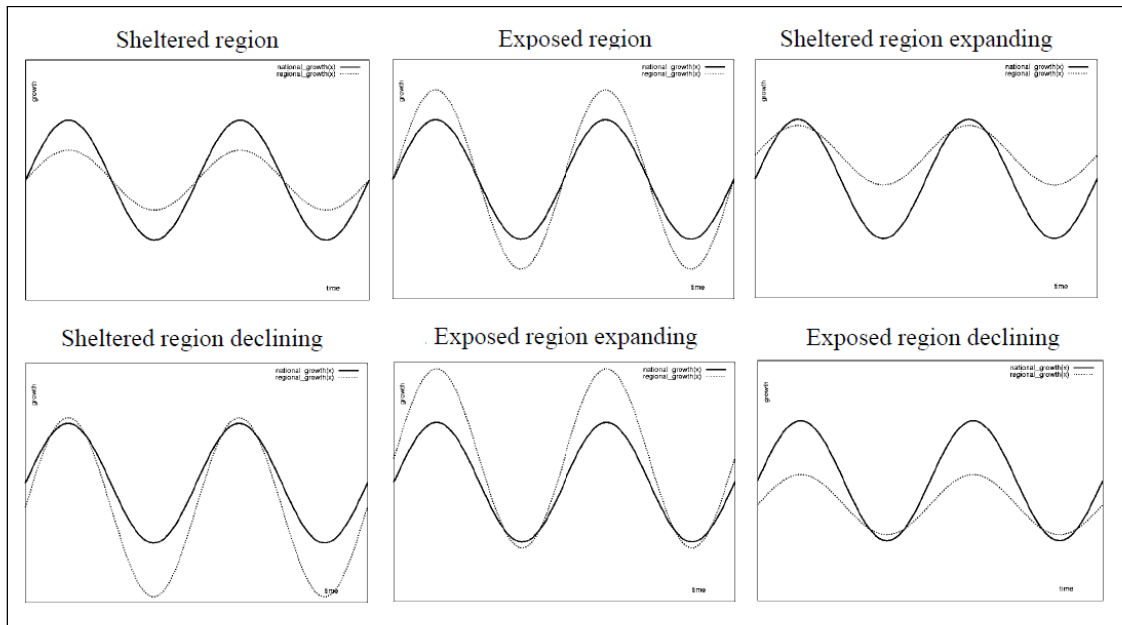


자료: Martin(2005) 일부 수정 · 보완.

- 이러한 공급주도의 지역정책에서 한 가지 고려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는 대외적인 경기변동에 따른 지역경제의 효과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임.
- 경제주체의 지역 특수적인 합리적 기대가 글로벌 차원의 투기적 기대에 의해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음.
- 자기강화적인 경제적 기대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으면 크루그만이 보여준 바와 같이, 지역은 전문화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외부적 충격에 민감할 수 있다는 점은 주의 깊게 논의되지 않음.
-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수출주도형 경제가 더욱더 강화됨에 따라 대외 충격에 의한 경제의 변동성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고려하는데 있어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는 필수적임.
- 즉, 지역경제는 일정부분 자율성을 구가할 수도 있지만, 국민경제의 구조적 동형이라는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국민경제의 구성요소로서 각 지역경제의 포트폴리오를 균형 있게 재구성하는 것이 국민국가의 건전성과 지역경제의 자율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함.
- 경기변동에 대한 지역경제의 노출의 정도는 교역수준과 같은 개방의 정도, 산업구조, 복지시스템의 구축 등과 연관되어 있음.
- 경기변동에 전혀 노출이 안 될 수 없지만, 지역경제구조를 다각화하고, 공공부문과 복지체제를 정비하는 것은 경기변동성을 줄여줄 수 있음.

- 물론 이것이 정치적 잠금(lock-in)으로 이어져 혁신적인 사고가 소
통될 수 없는 질곡으로 작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림 6〉 경기변동과 지역경제



자료: Rodriguez-Pose and Fratesi (2003).

4. 지역경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 폴라니적 사고

□ 지역경제에 대한 기존 프레임과 새로운 프레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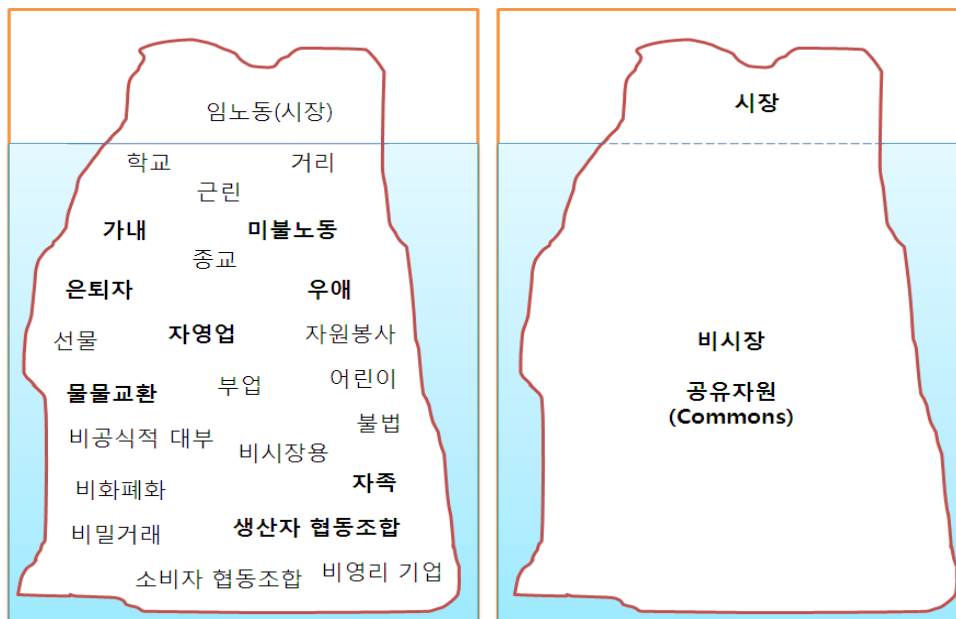
- 기존의 경제담론은 경제는 상이한 사회적 과정과 분리되어 있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회계적 가치의 계산, 조직과 관행을 통한 경제의 재생산에 관심을 가짐.
- 이러한 관점은 경제 현상에 대한 빙산의 일각(iceberg) 이미지와 호응함(Gibson-Graham, 2006)
- 임노동, 상품의 시장교환과 자본주의 기업경제는 전체 경제의 빙

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도 있음

- 기존의 논의들은 이러한 경제에 대한 협소한 인식의 프레임의 구축을 통해 이에 대한 과학적·분석적 지식의 축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왔음

<그림 7> 경제에 대한 새로운 프레임

빙산의 일각의 관점의 경제 프레임 경제에 대한 새로운 프레임



자료: Gibson-Graham(2006) and Miller(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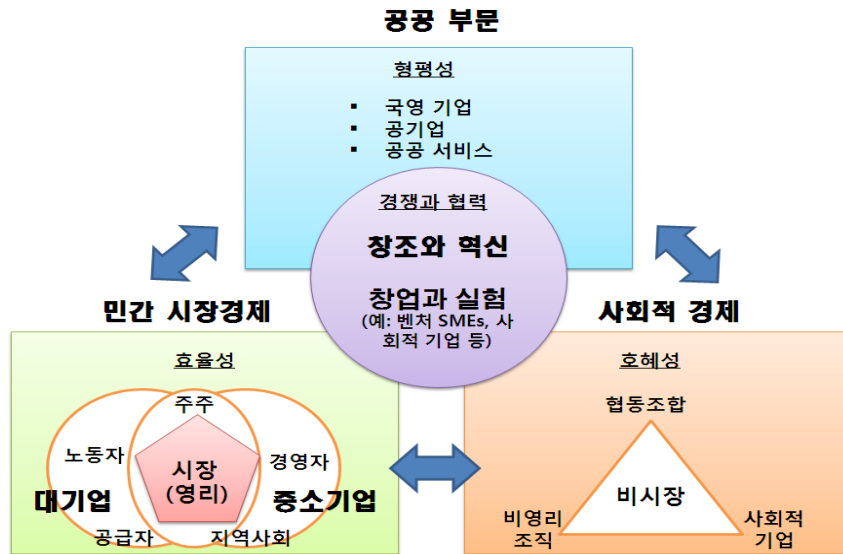
- 기존 경제 담론을 빙산의 일각으로 인식하게 되면 생산, 교환(거래), 분배에 연관된 경제활동들이 수면에 은폐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됨.
- 이에 따라 수면 위의 경제활동과 수면 아래의 경제활동 사이의 관계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
- 따라서 시장교환 이외의 다른 가치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제활동들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음.

- 경제는 다양하고 이는 상이한 가치들에 의해 작동한다는 사고는 칼 폴라니(Polanyi, K.)의 형식적인 경제와 실체적인 경제의 구분과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빙산의 일각으로 보는 시장경제와 그 수면 아래의 비시장경제로 구분하는 것은 이분법적 사고이고, 이들 간에는 상호작용이 발생하고, 시장경제는 비시장경제가 있기 때문에 존재가능하다는 사고가 필요함(Miller, 2011).
- 비시장관계는 공유자원(common)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관계에 따라 그 규모가 범위가 결정되며, 거버넌스 구조에 따라 지속가능한 관리가 가능하게 됨.

□ 생태계로서의 지역경제

- 지역경제는 공공부문, 민간의 시장경제, 그리고 사회적 경제로 구성되어 있음.
- 이러한 경제는 각기 다른 조직 원리에 따라 작동하며 상호 보완적이고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
- 공공부문은 기본적으로 평등과 형평성의 조직원리를 기반으로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국영기업이나 공기업을 통해 제공함.
- 국가는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여 국민들에게 이를 배분하는 재분배라는 작동 논리에 따라 움직임.
- 따라서 공공부문의 작동 논리는 전적으로 효율성에 함몰되지 않으며,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함.

〈그림 8〉 생태계로서의 지역경제



- 반면에 민간의 시장경제는 효율성과 수익성의 작동 논리에 따라 움직이며, 기업관에 따라 주주중심모형과 이해관계자모형으로 나눌 수 있음.
- 전자의 경우 주주가 일차적인 이해관계자이지만, 후자의 모형에서는 주주는 종업원, 공급자, 소비자, 지역사회 등 다른 이해관계자들 중의 하나로 이해됨.
- 마지막으로, 사회적 경제는 전적으로 투자자의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경제가 조직되지 않은 경제를 말하며, 협동조합, 공제조합, 비영리단체, 기부재단, 사회적 기업 등을 통해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음.
- 이 영역은 상호성의 원칙에 의해 경제가 조직되며, 공적 이해관계의 추구, 멤버십과 연대성의 원리 등이 경제의 운영원리로 채택됨.
- 가입자들의 자발적 참여, 수익 추구의 배제, 민주적 운영, 가입자간 연대성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는 고용, 사회적 결속, 지역과 농촌개발, 환경보호, 소비자보호, 사회보

장정책 등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경제는 순전히 시장의 수익추구 논리가 추동하는 시장경제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상이한 조직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공공부문과 사회적 경제로 구성됨.
- 이들 간의 상호의존과 보완성의 관계가 중요하며, 서로가 대체의 관계가 아님.
- 이러한 세 영역 간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자율성이 유지가 되어야 하며, 이는 경제를 생태계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예를 들면, 최근 영국의 보수당 연정 정부는 과도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Big Society”라는 슬로건 아래 공공부문의 역할을 사회적 경제로 떠넘기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음.
- 다른 한편으로, 공공부문의 성과를 시장경제의 잣대로 과도하게 해석하려는 일련의 현상들이 발생하여 왔음.
- 경제를 생태계를 인식한다고 하여 상호 간의 하모니만이 아니라 일정 정도의 갈등과 긴장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세 영역 간의 경제조직 논리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불가피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생태계로서의 경제는 경쟁과 협력이 동시에 작용하며, 여기서 평판과 신뢰는 선별기능의 일환으로서 양적인 경쟁의 부정적인 측면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함.
- 생태계로서의 경제에 대한 인식은 폐쇄가 아니라 개방체제로 경제를 인식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업이나 경제활동의 발생과 새로운 실험이 지속적으로 추구되어야 함.

- 즉 생산자로서의 경제시민권의 확대(즉, 창업과 실험)는 경제적 민주화의 중요한 부분이며, 이는 기존의 시장지배력의 지속적인 견제 수단으로 레버리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혁신적인 중소기업의 창업, 사회적 기업의 출현(즉 기업가정신의 발현)은 이러한 의미에서 개방형 지역경제의 구축에서 필수적인 부분이고, 이 영역에서 삼자 간의 파트너십이 중요함.
- 시장경제에서 혁신중소기업은 시장지배력의 문제를 제기하고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놓으며, 마찬가지로 사회적 기업은 비시장경제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열어 놓음.
- 예를 들면, EU에서는 사회적 기업이 은행, 보험, 농업, 다양한 서비스, 보건 및 사회서비스, 장인분야 등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그 수는 약 200만 개(EU 전체 기업의 약 10%)이고, 취업자는 약 1,100만 명(EU 취업자의 6%)에 달하고, 이 중에서 70%가 비영리단체에, 26%가 협동조합에, 그 나머지가 공제조합에 속해 있음(http://ec.europa.eu/enterprise/policies/sme/promoting-entrepreneurship/social-economy/index_en.htm 참조).
- 또한 사회적 기업은 일반적으로 영세기업 또는 중소기업이며, 공통이익 추구, 연대성과 상호성, 멤버십에 의한 1인 1표의 원칙 등 소위 이해관계자 모형에 따라 조직되며, 주위환경에 유연적이고 혁신적이며, 또한 능동적 멤버십, 헌신,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고 있음.

□ 생태계로서의 지역경제의 프레임과 상생 협력의 의미

-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사회적 아젠다로 다루어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은 시장경제의 영역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이상의 문제이기도 함.

- 왜냐하면,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아젠다는 각 경제 내에서 공정 시장과 재분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각 영역들 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큰 차원의 의미도 가지기 때문임
- 지나친 경제력의 집중은 생산자로서의 경제적 시민권의 배제를 의미할 수 있으며, 이는 시장경제와 사회적 경제 양자에서의 혁신적이고 유연적인 기업의 창업과 실험을 방해할 수 있음.
- 시장경제와 비시장경제는 상호 배타적이고 상호 대체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것이 때문에, 시장경제는 사회적 경제의 수요와 공급의 기반이 될 수가 있음.
- 예를 들면, 사회적 경제는 실업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등장하고 있으며, 이는 육아, 보육 등 새로운 사회 및 개인 서비스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은 협의적으로는 시장경제 내 대·중소기업 공정경쟁과 거래관행을 구축하는 것인 동시에, 광의적으로는 세 가지 영역 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이들 영역 간 개방형 체제, 즉 창업과 실험을 통한 기업가정신이 발현할 수 있는 경제체제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참고문헌>

- Andres Rodriguez-Pose, A. and Fratesi, U. (2003), "Regional economic cycles and the emergence of sheltered economies in the periphery of the EU", Paper submitted to the ERSA 2003 Congress University of Jyväskylä, Jyväskylä Finland, 27th-30th August 2003.
- Friedmann, J. (2000), "The Good city: in defense of utopian thinking",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4(2), pp. 460-472.

- Gibson-Graham, J. K. 2006, *A Postcapitalist Politic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Kitson, M., Martin, R. and Tyler, P. (2004), “Regional Competitiveness: An Elusive yet Key Concept?” , *Regional Studies*, 38(9), pp. 991-999.
- Krugman, P. (2003), *Growth on the Periphery: Second Wind for Industrial Regions?* The Allander Series, Fraser Allander Institute, Scotland.
- Martin R. (2005), “Thinking About Regional Competitiveness: Critical Issues” , Background ‘Think-Piece’ Paper Commissioned by the East Midlands Development Agency.
- Miller, E. (2011), *Rethinking Economy for Regional Development: Ontology, Performativity and Enabling Frameworks for Participatory Vision and Action*, MS Thesis, Department of Geosciences,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Amherst MA, USA.
- Stimson, R. J., Stough, R. and Salazar, M., (2009), *Leadership and Institutions in Regional Endogenous Development*, Edward Elgar: Cheltenham.